

Contents

발간사	2
초고령사회, 고객 곁에 신한은행!	
SOLUTION	4
신한은행이 제안하는 연금 사용설명서	
PEOPLE	17
신나는 인생 2막, 3인의 인터뷰	
BULLETIN	24
창업, 창직, 아는 만큼 더 스마트하게	
GUIDE	32
시니어를 위한 앱 가이드	
STORY	36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도시 라이프스타일	
COMMUNITY	44
독서와 토론 커뮤니티, 트레바리	
TREND	46
시니어의 일상을 윤택하게 하는 독립서점들	
STREET	50
시니어를 닮은 동네, 액티브 을지로	

초고령화 사회, 고객 곁에 신한은행!

초고령화 사회. 수년 전부터 각종 매스컴을 통해 부쩍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개개인의 준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신한은행도 이런 흐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은퇴 후 생활과 그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한미래설계'라는 은퇴 브랜드가 그것입니다.
미래설계센터는 고객들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설계포유' 웹이나 '부부은퇴교실', '퇴근후100분'과 같은 고객 세미나를 통해
금융은 물론 취미나 건강 등 은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출시한 '내 모든 연금' 서비스는 고객들의 노후 자산인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통합연금관리 시스템입니다.

'미래설계 은퇴 보고서'는 지난해 첫 번째 발간돼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두 번째 보고서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층 연금과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곳에 담긴 액티브 시니어들의 삶을 공유하고 미래설계에 대한 유익한 통찰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신한은행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은행장 진옥동

진옥동





신나는 은퇴를 위한 금융 솔루션

은퇴가 신나는가?

고달팠던 일터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는가?

문제는 경제. 수입은 없고 쓸 일만 남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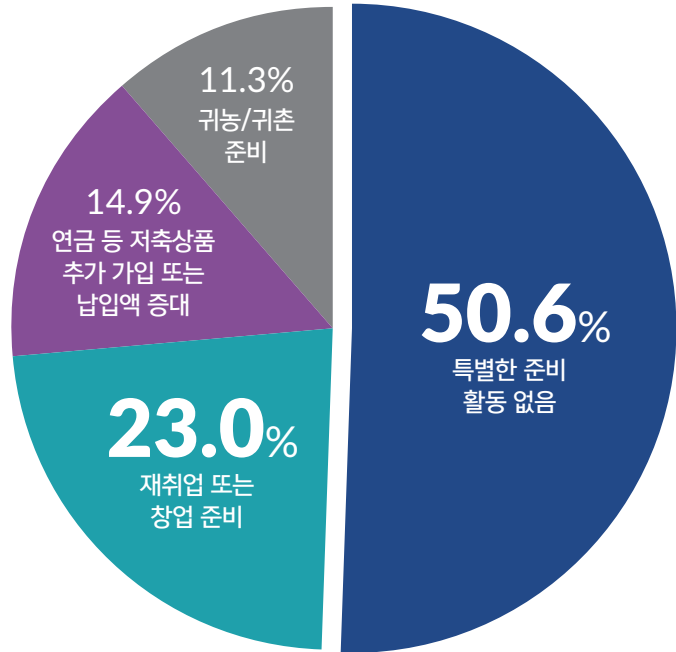
은퇴를 위해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미래설계센터가 제안하는 연금 사용설명서.

글/자료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은퇴 예정자의 퇴직 후 경제적 준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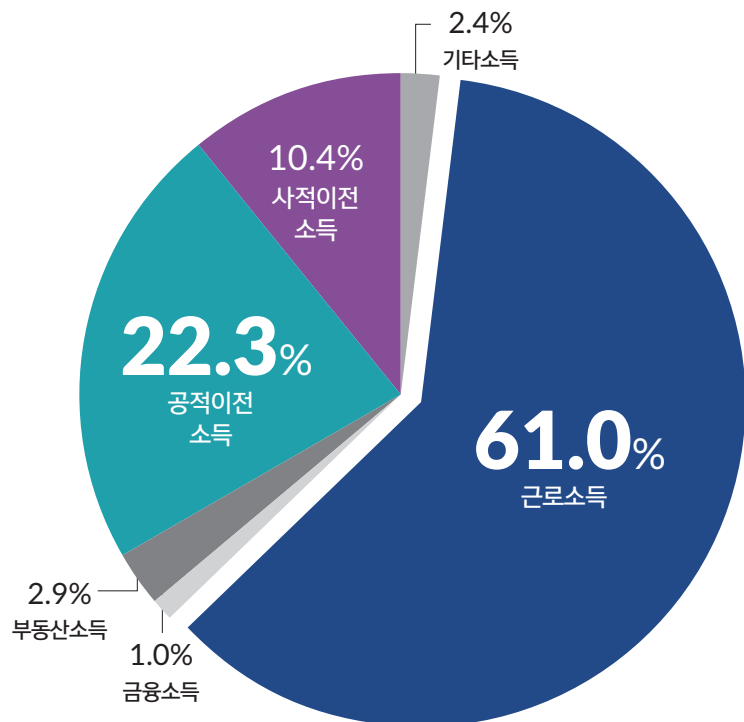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3년 이내에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은퇴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게 없다'고 답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출처: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신한은행

전체 가계소득에서 세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고령자(만 50세 이상)의 연평균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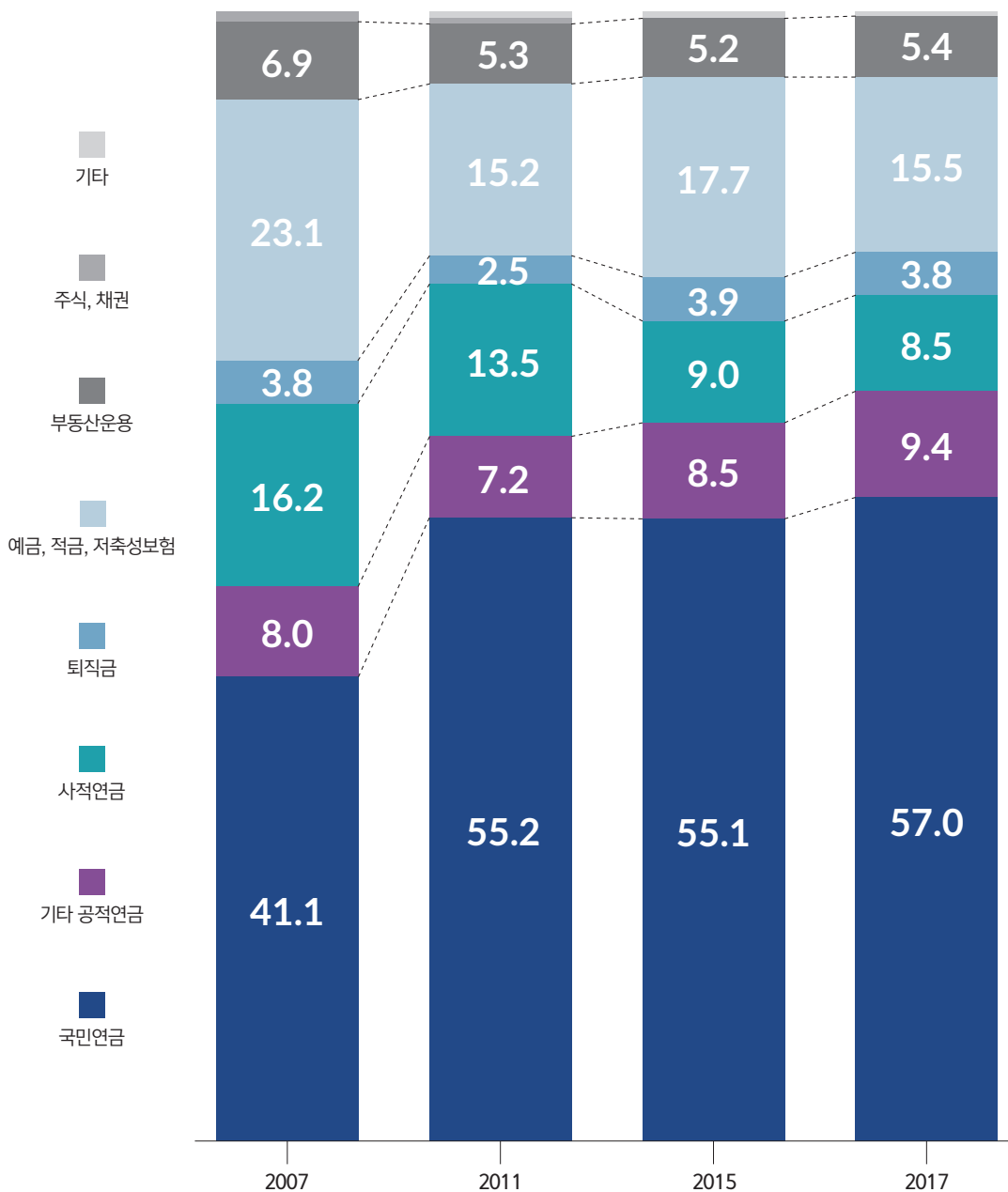


출처: 2018 국민연금공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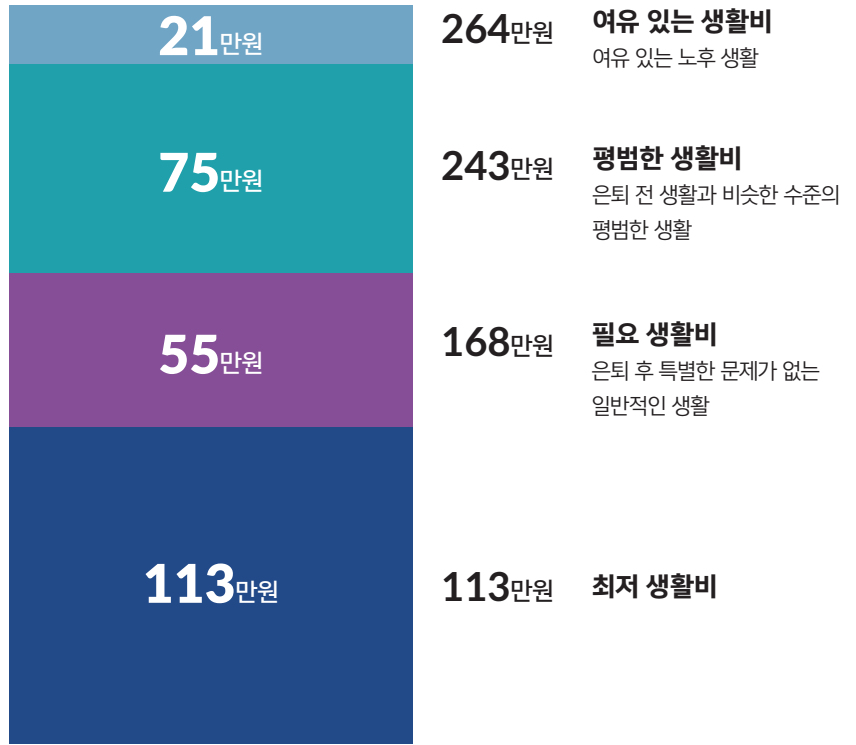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07~2017년 각 년도

우리나라는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세 가지 연금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설문 결과, 국민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으로 준비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 및 금융자산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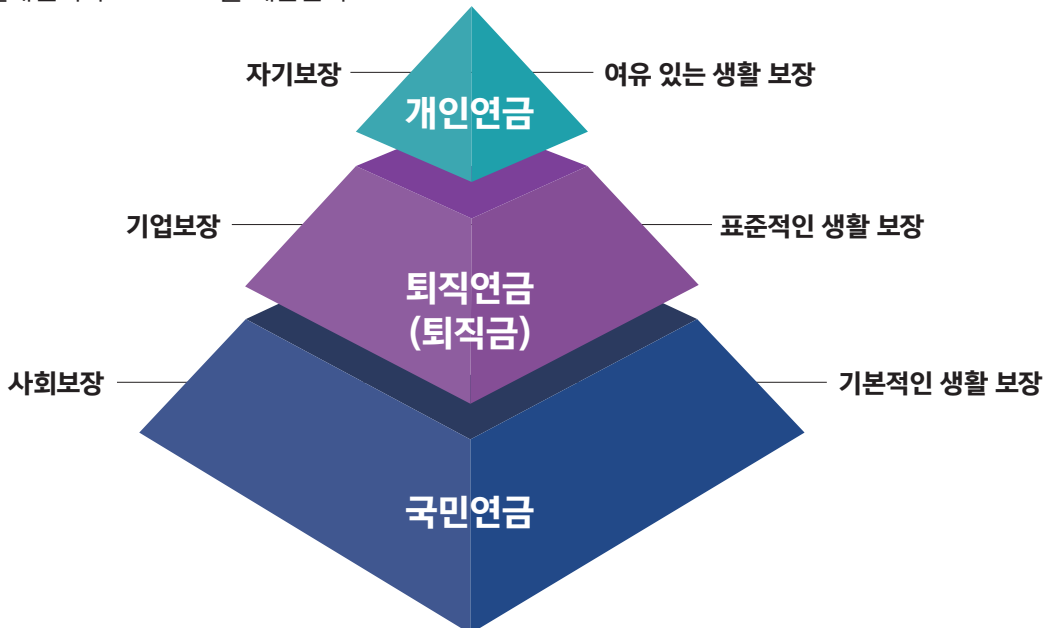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

201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17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가구당 기준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장치

3층 구조의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하고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가 Solution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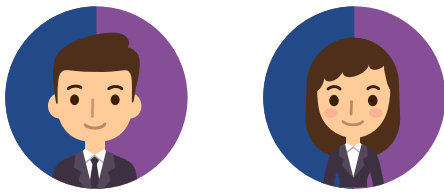


Solution 1. 국민연금

Q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많은 사람들은 연금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2018년 서울 거주자 기준,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 연금액은 327만 8000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93년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수급자가 늘고 있다. 2018년 수급자는 460만명에 이르고,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54만명, 월 평균 연금액은 91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주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을 인상시키고 있다.

부부 합산 최고 금액 수급자(서울시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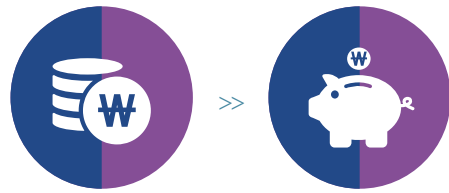
165만 6천원 + 162만 2천원

총 8,349만 1천원
63세 | 330개월 납부

총 8,593만 1천원
62세 | 338개월 납부

>> 월 연금액 327만 8천원

최고 금액 수급자-연기 신청(서울시 거주, 남)



총 7,269만 3천원
66세 | 300개월 납부

월 연금액
204만 6천원

연기신청 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서울시 거주, 남)

총 8,834만 8천원
62세 | 358개월 납부

>> 월 연금액 174만원

Q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을 때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까? 그렇다. 월 2,356,670원(2019년 기준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수령액이 줄어드는 기간은 5년이다. 그 이후엔 정상적으로 수령한다.

감액한도: 노령연금액의 1/2

A값 초과 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만원+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Q 내 맘대로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받는 시기를 조정해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조기연금),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연기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을 때,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는다. 이 경우 매년 6% 연금액이 감액된다. 반면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도 있다. 단,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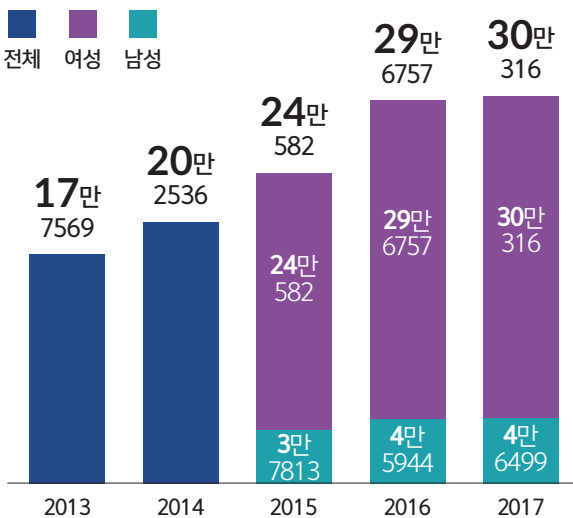
←————— 매년 6% 하락 —————— | —————— 매년 7.2% 증가 ——————→

청구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00%	107.2%	114.4%	121.6%	128.8%	136%
수령금액	56만원	60만 8천원	65만 6천원	70만 4천원	75만 2천원	80만원	85만 7천원	91만 5천원	97만 2천원	103만원	108만 8천원

*62년생이 국민연금 수급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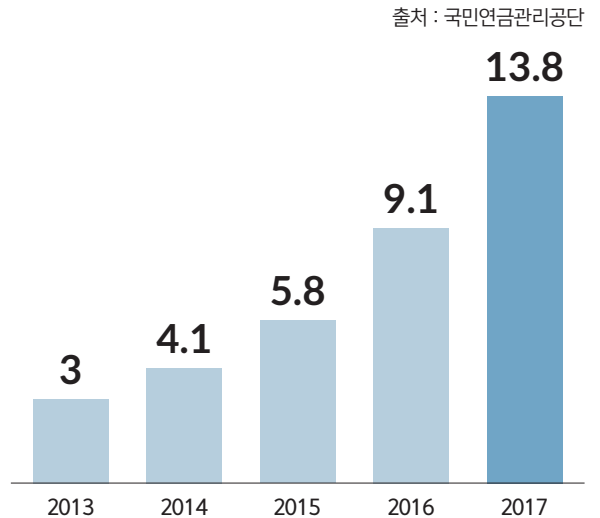
Q 연금, 더 넣거나 나중에 넣거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현황 단위: 명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9만원~42만1200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 단,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은 제외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건수 추이 단위: 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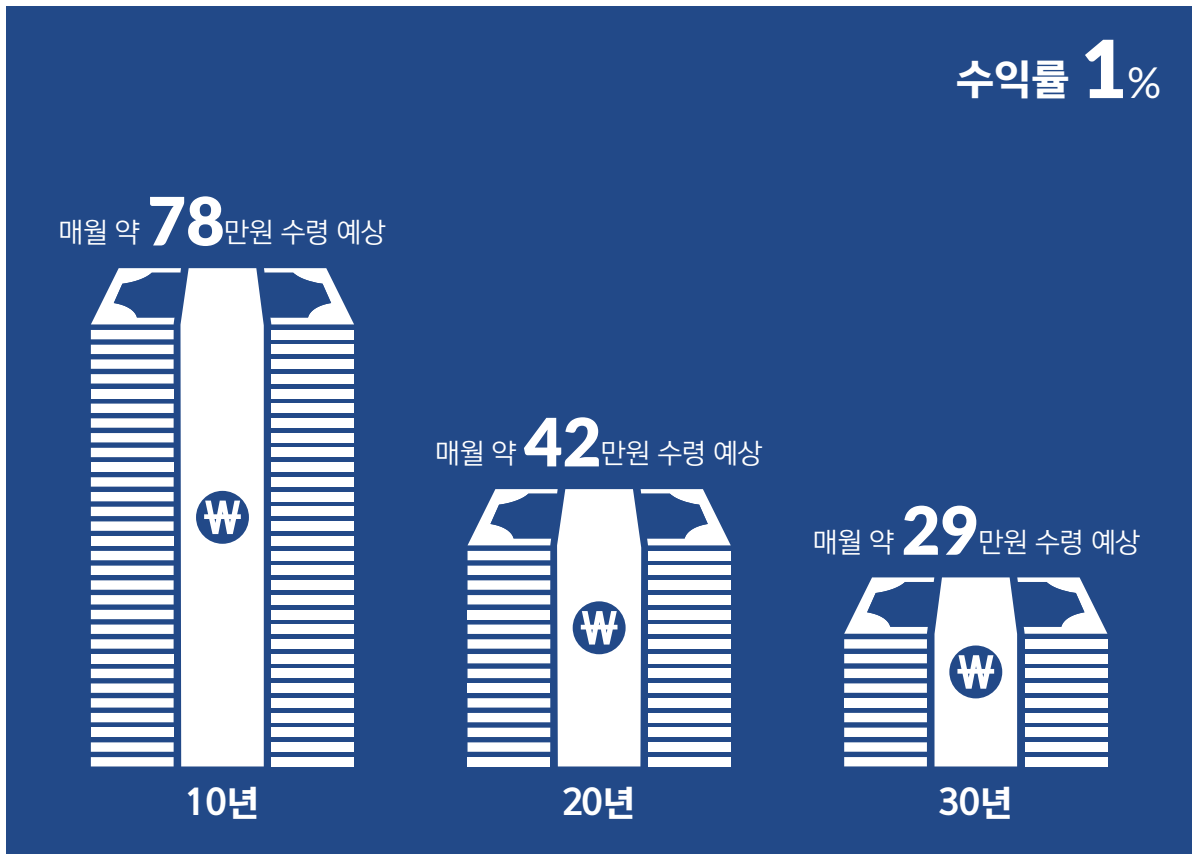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라는 것도 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다. 이 경우 추후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 현재 무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2013년 3만건 이래로 2017년 13만 8000건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Solution 2. 퇴직연금

Q 나만의 퇴직연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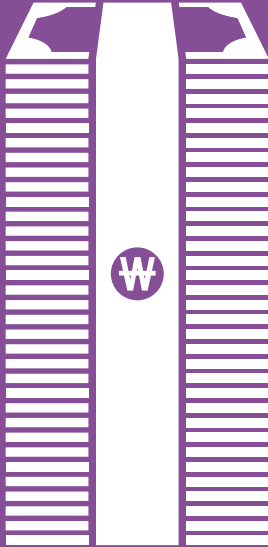
이직,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은퇴 후 모자란 생활비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며, 퇴직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2018년 기준 퇴직세법을 적용하여 퇴직금 1억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세전 기준)하고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나만의 퇴직연금을 만들어 보자.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수급시점, 수령액, 그리고 수익률이다. 퇴직금이 1억원일 경우 얼마씩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지 수익률 별로 사례를 알아보자.

퇴직금 1억원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수익률 3%

매월 약 83만원 수령 예상



10년

매월 약 51만원 수령 예상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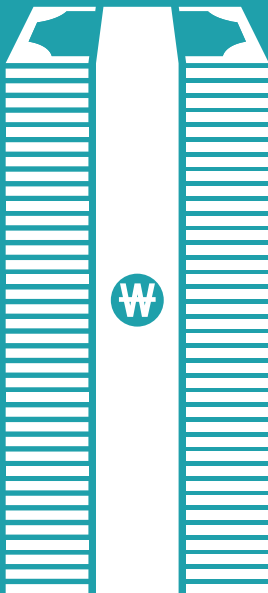
매월 약 39만원 수령 예상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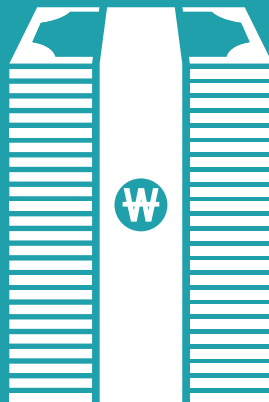
수익률 5%

매월 약 90만원 수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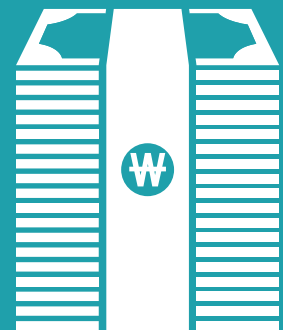
10년

매월 약 61만원 수령 예상



20년

매월 약 50만원 수령 예상



30년

Solution 3. 개인연금

Q 내 개인연금 체크하기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가입하지만 상품 성격은 동일하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를 아는 것이다.

1. 세제 혜택 있을까? 없을까?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은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과 소득 신고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금 수령시 5.5% 이하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신탁, 펀드, 보험 및 퇴직연금(개인형 IRP) 등 4가지다. 세제비적격은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다. 다만, 불입 기간엔 혜택이 없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일반연금보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

세제적격 상품은 가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연도별로 상품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1994년 출시된 세제적격 상품은 세제 개편과 상품 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 아래와 같이 변화해 왔다.

판매 기간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 수령 방법	상품 형태
1994. 6. 20 ~ 2000. 12. 31	비과세	10년 이상 적립 5년 이상 수령	신탁, 보험 도입 (개인연금 신탁/보험)
2001. 2. 5 ~ 2012. 12. 31			펀드 도입 (연금신탁/보험/펀드)
2013. 5. 2 ~ (2017.12.31연금저축신탁 판매중지)	연금소득세 (3.3~5.5%)	5년 이상 적립 10년 이상 수령	개인형 IRP 도입 (연금저축 신탁/보험/펀드 & 개인형 I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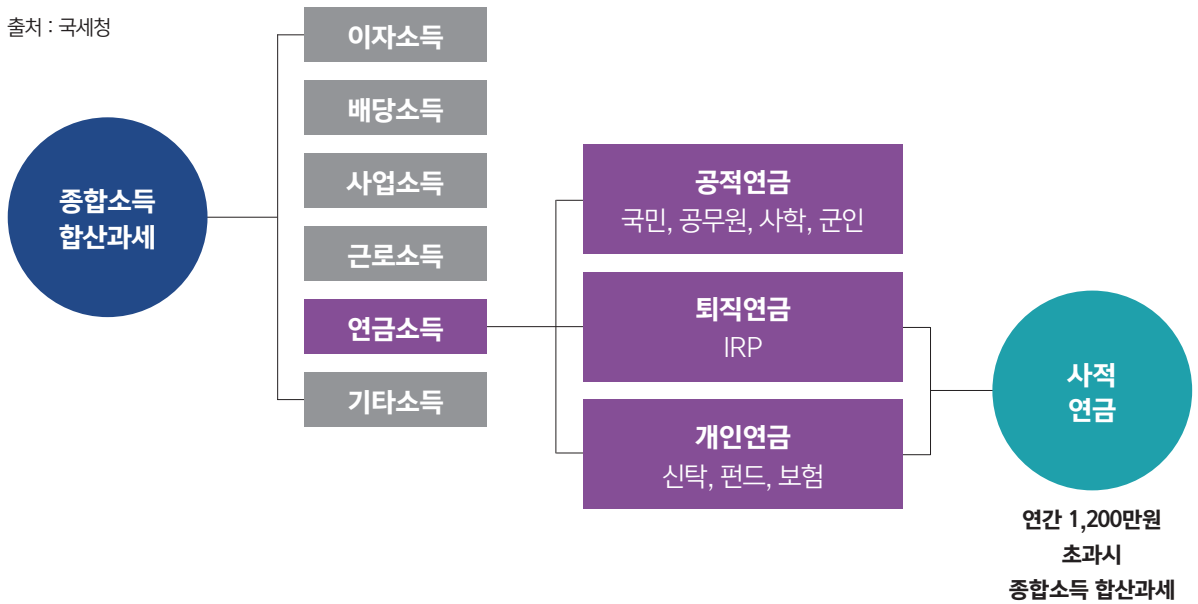
3. 연금수령 방법과 기간 정하기

개인연금의 경우 55세가 되면 수령 방법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뉜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이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령별로 3.3~5.5% 연금소득세를 낸다. 수령 기간의 경우 먼저 최소 수령 기간이 5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도 과세 대상이다

연금도 소득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80세 이상이라면 3.3%, 70대 4.4%, 그 외는 5.5%로 정해져 있다.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사항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2002년 이후 불입분 대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류과세한다(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분 대상). 초과할 경우엔 연금 총액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절약하려면 사적연금의 수령 기간을 조정해 월 수령액을 1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국세청



Q 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불입기간이 짧아서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면 금융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1. 즉시연금

보험회사의 즉시연금 상품은 상속형, 혼합형, 종신형 등이 있다.

상속연금형은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 해당 시점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형의 경우 만기 생존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종신연금형은 적립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적립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연금예금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Solution 4. 주택연금

Q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사망시까지 연금을 차등해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대출 기준으로 내 집 시세(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단위: 천원

구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07	214	321	428	535	642	749	856	963
60세	198	397	595	794	993	1191	1390	1588	1787
70세	298	597	895	1194	1492	1791	2090	2388	2687
80세	482	964	1446	1928	2410	2892	3374	3384	338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년 3월 기준

Q 가입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로서, 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유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Q 주택연금의 장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1. 합리적 상속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 총액 :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 총액 : 부족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2. 세제 감면 혜택(자세한 내용 www.hf.go.kr 참조)

대출 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산세(본세)는 경우에 따라 25% 감면받을 수 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미래설계센터의 제안

3층 연금을 기간별로 배분하자

연금 이슈가 발행하는 연령 구간은 55세(개인연금)와 60~65세(국민연금) 시기다.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 개시까지는 소득이 없는 시기로 은퇴 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소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시 이후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근로소득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수령 시기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가 중요하다. 조기에 수령하면 최대 5년의 국민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수령시기를 연기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 1355)으로 전화하자.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활용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으로, 경력단절로 납부 기간에 공백이 있는 사람은 추후납부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리자.

퇴직금은 연금으로

퇴직금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갚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다. 또한 수익률은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므로, 긴 기간에 나누어 받는 것이 좋다.

나만의 퇴직연금 활용법

퇴직연금은 수령금액, 수령기간, 수익률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정확한 은퇴설계를 통해 내게 맞는 퇴직연금 활용법을 찾자.

사적연금(세제적격 IRP & 연금저축) 연 수령액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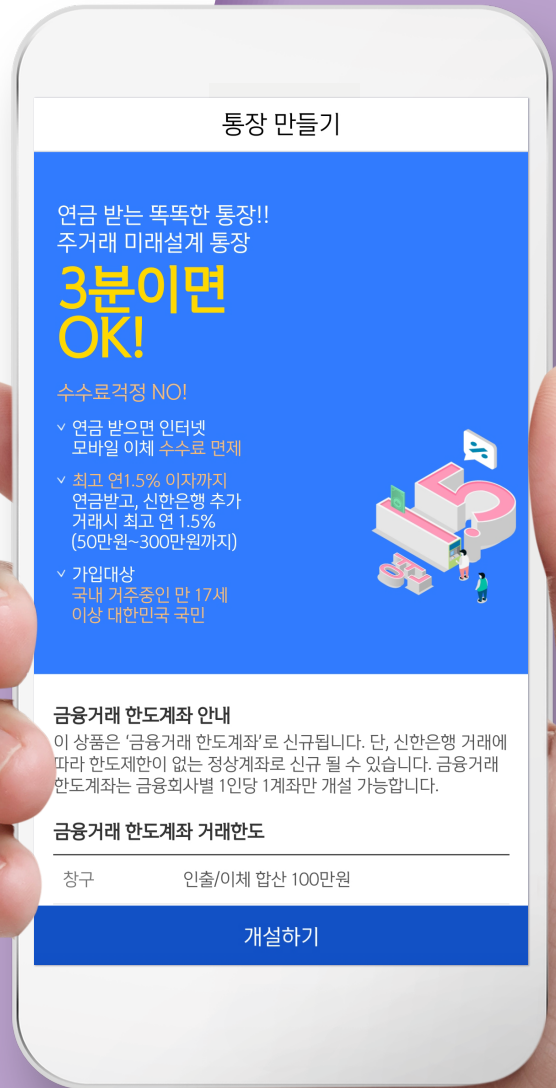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의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세가 과세된다. 연금 수령기간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도 활용하자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현재 집에서 주거하면서 은퇴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전화(1688-8114)로 상담 받자.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 통장

입출금 통장이 이자도 주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자율

1. 기본이자율 5천만원 미만 **연 0.1%**, 5천만원 이상 **연 0.2%**
2. 우대이자율 **최고 연 1.5%** (평균잔액 50만원~300만원까지)
 - ① 이 통장으로 연금수령하면 **연 1.0% 적용**
 - ② 이 통장으로 연금수령 하고 신한은행 거래시 **연 1.5% 적용**
(신한은행 거래에 대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우대서비스

1. 수수료 면제
 - ① 전자금융서비스 면제
 - ② CD/ATM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 ③ 창구송금수수료 월 10회 면제
2. 환율우대 (USD/JPY/EUR 50%, 기타통화 20%)
3. 우대요건
이 통장으로 연금수령 또는 **만 50세 이상** 고객으로 신한은행 거래시
(신한은행 거래에 대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신나는 인생 2막
3인의 시니어가
살아가는 법

PEOPLE



최 현 열

IMF는 은행 지점장의 일상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빼앗아갔다.

최현열 씨가 건강을 다시 찾은 건 음악 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음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55년을 돌아, 다시 느끼는 행복감

경기도 여주군 금산면 이포리. 이 곳은 최현열(73) 씨의 고향이다. 이포초등학교와 이포중학교를 차례로 다녔으니 '진골' 토박이인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최현열 씨에게 이 마을은 잊혀진 곳이었다. 정글 같은 도시에서 생존해야 했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부지런히 살기 위해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일터는 은행이었다. 숫자와 결과로 실적과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곳. 그는 증명했다. 더 일찍 출근했고, 더 치열하게 일했고, 더 많이 마셨다. 술도 일의 연장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과 현실은 그를 배신했다. "IMF 때 명예퇴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났죠. 속상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핑계로 술도 엄청 마셨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분노는 그의 몸안에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부신암이라는 부메랑으로 찾아왔다. 심근경색도 그를 공격했다. 심장혈관이 막혔고 스탠트 시술로 희망을 찾아야 했다.

은행을 그만둔 후 최현열 씨 부부는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하숙집을 운영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하숙집은 곧 엄마가 지어준 밥이자 푸근한 잠자리였다. 덤으로 따라온 친구들을 재워주고 아침엔 밥도 차려 내 자식과 같이 먹여주는 곳. 솔로 탕진한 하숙비를 내지 못해 찢찢매도, 모르는 척 해주던 시절, 그 때 하숙집의 정서는 그랬다. 응답하라 1994... 그러던 하숙집 풍경이 서서히 쇠락해가던 시절, 원룸과 고시원이 하숙집을 대체하고, 하숙집 엄마의 밥상이 그 윤기를 잃어가던 시절. 최현열 씨 부부는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두 번째 인생

중학교 2학년 때 떠났던 곳, 최현열 씨는 55년 만인 2008년, 고향 땅을 다시 밟았다. 고향은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다. 일가친척, 함께 나고 자랐던 친구들은 대부분 떠나고 없었다. 낯설었다. 해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았다. 최현열 씨 부부는 대형운전자격을 뒀다. 그가 다녔던 이포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갓길과 하갓길을 함께 했다. 300평의 땅에 발농사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역시 가장 어려운 건, 하고 살 일이 마땅치 않은 거죠. 버스 운전을 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의욕적으로 발농사도 지어봤지만 영농비가 만만치 않아요. 수확한 것들을 내다 팔아야 할 경로도 찾기 쉽지 않고. 결국 우리 부부 먹고살 정도의 텃밭으로 만족하고 살게 됐죠."

그럭저럭 귀촌 생활에 적응해 갈 무렵, 최현열 씨는 자그맣지만 소중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수렴해가는 곳, 결국 '내게 맞는 행복'이다. 은행원으로 바쁘게 살던 시절, 어렵게 짬을 내 치던 골프를 마음껏 치게 됐다. 2011년도엔 골프 티칭 자격증도 뒀다. 전혀 몰랐던 인생의 재미도 알아갔다. 바로 색소폰과 댄스스포츠. 음악과 운동은 먹고 사느라 지치고 마모된 그의 몸과 정신을 새롭게 일깨웠다. 차차차, 탕고, 자이브, 룸바의 리듬이 쇠락해가던 그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봉사의 기쁨

무엇보다 최현열 씨의 행복감을 일깨운 건 봉사다. 어느덧 색소폰과 댄스를 시작한 지 10년. 뭐든지 10년을 하면 일가를 이룬다고 했던가. 이제 그의 색소폰과 댄스 실력은 수준급이다. 매주 주민자치센터에선 색소폰 커뮤니티 회원들의 연주가 흐른다. 이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을 배웠다. '춤 선생님'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한 달에 4~5군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다니며 색소폰과 댄스 공연도 한다.

"제 자식들이 그래요. '댄스와 음악이 아버지 건강의 은인'이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요양사들이 제 연주와 댄스에 즐겁게 호응할 때, 더없이 보람을 느껴요. 여주의 특산물인 참외 축제 때는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공연도 합니다. 아들 녀석이 오진 않았어도 막걸리 값을 보내줬어요. 공연 동영상을 보냈더니, 은행 동료들에게 널리 공유했더라고요."

최현열 씨 부부는 남매를 자식으로 뒀다. 아들과 딸, 사위까지 아버지처럼 은행원이다. 지점장으로 살다가 IMF 명예퇴직을 경험한 아버지 삶의 굴곡, 그 신산했던 시절. 자식들은 이제 웃으며 그 시절을 추억할 것이다. 한때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하숙밥을 지어 먹었던 아버지와 엄마의 삶은 이제 고향 마을의 한 풍경이 돼가고 있다.



김 성 희

글쓰기는 김성희 씨의 힘이다.
학창시절 품었던 꿈은 55년 세월을 돌아 다시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의 블로그가 그 징표다.

글쓰기는 나의 힘

“며느리 동글이(애칭)가 가족으로 오고 우리집에는 한다발의 행복도 같이 왔다. 그 전의 생활은 물맛 같이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 핸드폰에 며느리는 ‘동글이 막내딸’로 저장돼 있다.”(‘다음’ 블로그 ‘모과 향기’의 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글을 쓰고 싶어 한다. 자기 이름이 인쇄된 책을 내는 건, 글 좀 읽는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글을 쓴다는 거, 그게 뭘까?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일 것이다. 김성희 씨는 자신의 블로그 ‘모과 향기’에 쓴 1494편의 글을 통해 이 물음에 답하고 있다. 많은 글쓰기 커뮤니티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좋은 글쓰기의 비결’,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김성희 씨의 블로그다.

김성희 씨의 글엔 ‘현재의 실존’에 대한 자기 수궁과 긍정이 담겨 있다. 자신의 나이를 세월이 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젊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마음을 여는 것, 가족들을 비롯해 주변의 관계에 대해 수평적이 되는 것 등, 자신의 처지와 마주 대면하고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긴 세월을 돌아 다시, 글쓰기

김성희 씨의 글쓰기는 대학 졸업 전 시작됐다. 당시 결핵성 늑막염으로 1년간 치료 생활을 하던 중 왕성한 독서를 시작했고 <여성동아>에 장편소설을 투고했다. 비록 최종 선정 되지는 않았지만 그 열망은 평생의 흔적으로 남았다. 그리고 긴 세월을 돌아 55세, 김성희 씨는 펜 대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글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첫 글을 쓰던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 자동저장장치가 없어서 꼬박 세 시간 쓴 글을 날린 적이 있어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렵게 시작한 그의 글공간을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2010년 다음 블로그 대상(교육 부문 시사채널우수상)을 수상했고, 그해 대한민국 톱블로그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공유를 소망하는 글쓰기

그렇게 시작한 블로그도 그와 함께 세월을 쌓아가고 있다. 그는 이제 그 열정을 사회와 공유하는데 열성적이다.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요, 손주들에게 자상한 할머니이지만 그의 글쓰기는 사회를 향하고 있다. 대전시민대학 강사(<블로그 만들기부터 기자단 되기>), 대전한마음야학 문해교원 선생님, 국립 중앙과학관 온라인 기자단, 대전시청차미디어센터 SNS 스마트폰 활용강사, 충청남도 도민 리포터. 이게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의 페이스북은 자신의 삶을 세상과 공유하고 소통 하느라 늘 분주하다.

“예전에 시민기자단으로 여러 분들을 인터뷰 한 것이 계기가 돼 대전시민대학에서 강의하게 됐어요. 36세 요가 강사부터 70세가 넘는 박사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요. 저도 곧 70이 되지만 뭐든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김성희 씨의 삶은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열정적이다. 그의 열정에 남편도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예전엔 부엌에 열선거리지도 않던 남편이 이젠 그에게 정성스런 밥상을 차려주곤 한다. 남편의 지원과 격려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소설을 향한 열망

글을 쓰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이다. 생각하고 소통하고 열망하는 것이 모두 이 행위에 담겨 있다. 김성희 씨는 지난해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그의 꿈은 장편소설을 쓰는 것이다. 오랜 과거, 젊을 때 간직했던 꿈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아직도 그는 늙지 않았다.

“67세인 나는 올해 들어서 자주 지치는 것을 느낀다 ...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70세가 넘으면 드물다. 나는 건강을 유지하며 천천히 야학교와 기자단 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 그 후엔 본격적으로 소설 창작을 할 생각이다. 잡초 같이 미미한 존재지만 보라꽃을 예쁘게 피우는 들풀이고 싶다.”



김영로

50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공학박사 과정을 밟았고, 고교 시절 꿈꿨던 밴드를 다시 결성했다.
김영로 씨는 매주 음악으로 다시 시작한다.

9호선 예술무대, 비틀쥬스를 아시나요?

노원구 태릉 입구 주택가의 한 건물 지하. 목요일 저녁 7시가 가까워오자 중년의 남녀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몇몇 사람의 옷차림은 심상치(?) 않다. 개성이 넘친다. 초여름인 데도 가죽부츠를 신은 한 여성은 뭐랄까, 터프한 로커의 감성이다. 'a6 밴드'. 어쿠스틱 밴드의 현장이다.

이 소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각자 자신의 기타를 꺼내 키를 맞추고 공연을 준비한다. 오늘의 연습곡은 <하늘과 땅사이>. 김성옥이 부른 1960년대 가요다. 청바지와 통기타로 상징되는 1960~1970년대의 정서가 2019년 한 주택가의 지하에 퍼져나간다. 서서히 멤버들의 몸이 풀려갈 무렵, 리더로 보이는 초로의 사내가 연주를 중지시킨다. “자, 목소리가 안 풀렸어. 다시 한번 가봅시다. 셋 돌 하나!” 붉은 셔츠를 입은 이 남자, a6의 리더, 김영로 씨다.

안테나와 함께 한 인생 2막

김영로 씨의 직업은 선생님이다.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겸임교수. 경기테크노파크엔 기술닥터로 등록돼 있다. 현장의 업체와 연계해 기술 지원과 컨설팅도 한다. 그가 처음부터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사업가로 연구개발용역사업을 하다가 안테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분야 전문가라는 우종명 교수(충남대학교)를 무작정 찾아가 안테나를 공부하고 싶다고 졸랐다. 우종명 교수는 국내외 관련 특허를 수십 건 보유한 안테나 분야의 전문가다. 결국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고 무려 7년이 걸려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때 그의 나이 56세였다.

“우리 일상이나 주변은 의외로 안테나와 연관돼 있어요. 휴대전화를 보세요. 라디오와 텔레비전, 더 나가선 배 같은 이동수단에서도 안테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이 안테나의 매력에 푹 빠진 거죠. 뒤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그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기술 분야에 있다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현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a6 밴드와 나이 들어가기

김영로 씨가 인생 2막을 함께 시작한 진짜 동반자는 따로 있다. 학교와 산업 현장은 일터일 뿐, 그의 진정한 반려는 바로 음악이다. 그 계기는 50세에 찾아왔다.

“제가 76학번인데요, 당시 학교에서 그룹사운드를 했습니다. 1978년엔 대학가요제에도 나갔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제겐 굉장한 경험이었죠. 그 뒤 음악을 잊고 살다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다시 음악에 대한 미련이 솟기 시작했어요. 50세에 다시 시작했으니, 벌써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는 a6밴드 말고도 ‘하얀안경(본명 양미련 씨)’과 5년째 듀엣 ‘비틀쥬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하철 9호선에서 주최하는 예술무대에서 매달 공연하는 것 말고도 춘천 MBC의 별빛축제, 세미원 양수리 연꽃박물관에서 매월 둘째 토요일 정기공연을 한다. a6 밴드 멤버는 모두 기타와 보컬을 겸하고 있으며, 오카리나와 하모니카를 수준급으로 연주하는 멤버도 있다. 이 밴드를 거쳐간 인원만 11명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밴드를 거쳐 갔어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에만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밴드가 3000여 개 될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역시 나이가 들수록 하기 쉽지 않아요. 젊을 땐 금방 배울 악기도 나이 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행운아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 해요. 글썄요. 앞으로 얼마나 밴드를 할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음악이란 행복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아쉬운 게 시간이라고. 젊은 시절, 김영로 씨는 고교 때부터 대학 시절을 거치며 밴드를 했다. 그가 50세가 되면서 다시 음악을 떠올린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시간이 절실한 만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에겐 시간이 없다. 요즘엔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다. 음악 외에는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무대는 두려운 곳이였다. 고교 시절, 사이먼 앤 가펩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부르면서 극도로 긴장했던 순간은 이제 추억이 됐다. 이제 그는 긴장하지 않는다. 젊음의 욕망 대신 황혼의 여유와 행복감이 그의 무대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더 좋은 인생 2막, 창업 창직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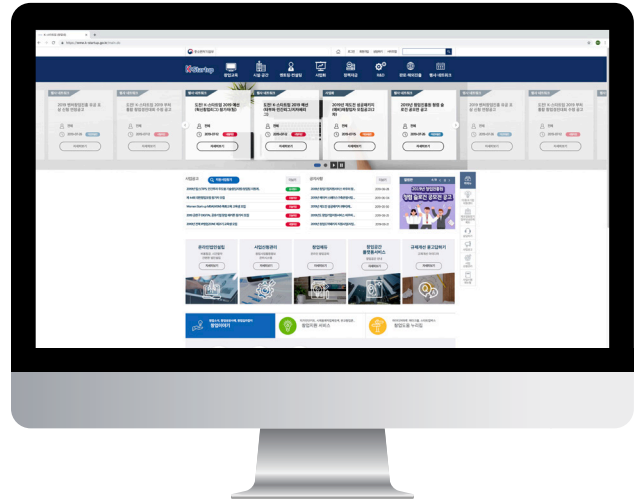
은퇴 후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려는 요즘 시니어 세대는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며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그들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의 정보 습득이 필수다.





창업 및 창직 정보 사이트



창업의 모든 것

K-스타트업 창업넷 (www.k-startup.go.kr)

창업교육 정보 및 창업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정보사이트이다. 시니어 창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법이나 시책 등의 변화가 있을 시에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창업 우수 사례를 모아보거나 간행물로 받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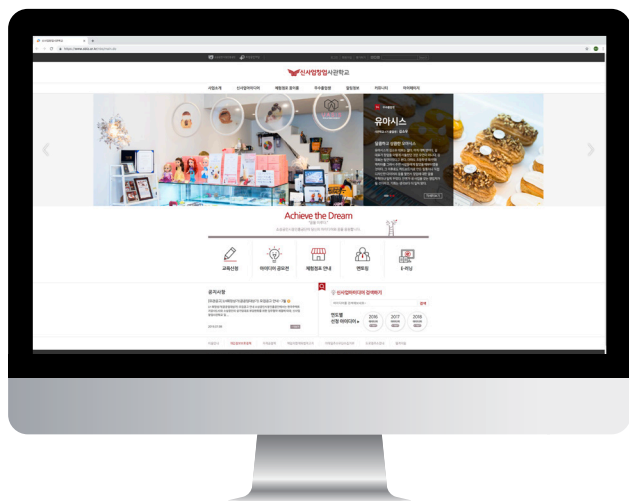
창업교육, 시설 및 공간,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 및 해외진출, 행사 및 네트워크 등 창업에 관한 전 분야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창업 공간부터 경영·마케팅·기술창업 교육 및 전문가 상담,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센터별로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기술·경력·네트워크를 가진 숙련 퇴직 인력과 청년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해 사업 자금, 교육 및 멘토링, 사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창업 성공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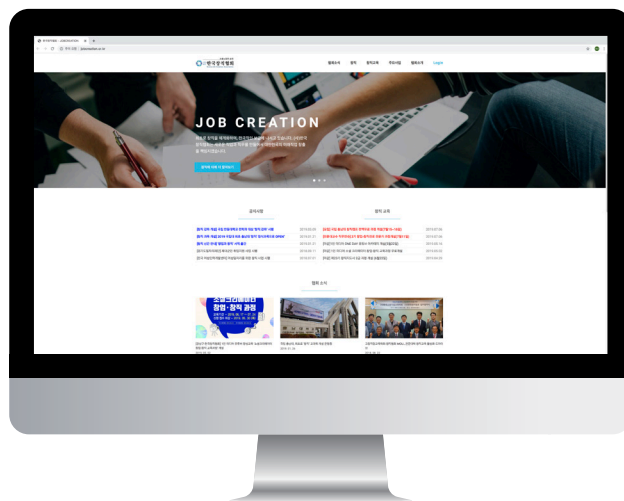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www.sbiz.or.kr/nbs/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유망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등 권역별 6개 사관학교에서 과밀업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점포 체험,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150시간의 창업·경영 이론과 업종별 전문 교육을 통해 사업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질 수 있다. 상위 성적을 받은 수료생에게 16주의 점포 체험으로 실전 감각까지 익히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점포 체험 기간에 개인별 전담 멘토링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사업 아이디어 토크’를 통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접수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발굴수당 지급)하고 보급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연간 지원 규모 100건), 창업 준비와 점포 운영시 필요한 이론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 이론교육’(연간 지원 규모 450명),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점포경영 체험교육’(연간 지원 규모 360명), 점포 체험 기간(약 120일)에 점포 운영 전문가가 1:1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멘토링’(연간 252명 지원),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50% 본인 부담 조건)하는 ‘사업화 지원’ 등이다.



국내 유일 창직전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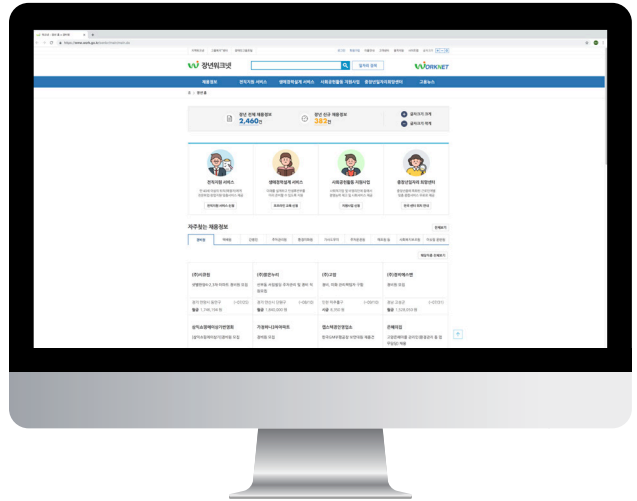
한국창직협회 (www.jobcreation.or.kr)

국내 유일의 고용노동부 인가 창직 전문 비영리법인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성장 시대를 맞아 사라져가는 직업과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인 현안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신직업 발굴과 보급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창직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존 직업의 직무를 재설계 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도 창직의 범주에 해당한다.

홈페이지에는 노인스포츠전문가, 도그워커, 디지털장의사, 도시농업메이커, 동물재활공학사, 주거교육환경안정관리사, 옷놀이 지도사, 아름다운 길 연구가 등 다양한 창직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창직의 개념과 과정, 구체적인 업무, 수익 구조, 전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직업세계의 변화와 미래 트렌드, 창직의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는 ‘1 DAY 특강’,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직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재 및 교구 등을 활용한 체험 및 실습 교육인 ‘창직 캠프’, 새로운 직업(직무) 발굴을 위한 단계별 집중 교육과 멘토링 및 이를 통해 도출된 창직 아이디어가 실제로 직업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직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재취업 및 시니어 커리어 정보 사이트



시니어 잡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장 장년워크넷 (www.work.go.kr/se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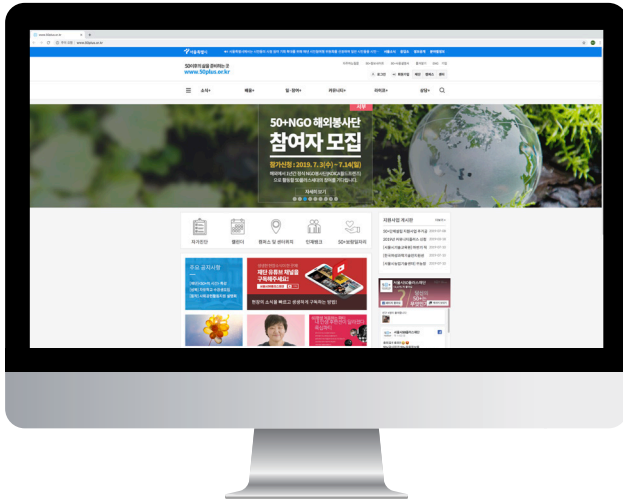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로 청년, 여성, 장년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장년 카테고리를 누르면 연결되는 장년워크넷에서는 무료 진로 적성 검사부터 역량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센터로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상담을 돕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단위에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자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부터 목표에 따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도약 프로그램 등의 종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역별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퇴직한 전문 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공익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3개 업무(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분야에서 사회공헌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시니어들의 아지트
 서울시50플러스재단 (www.50plu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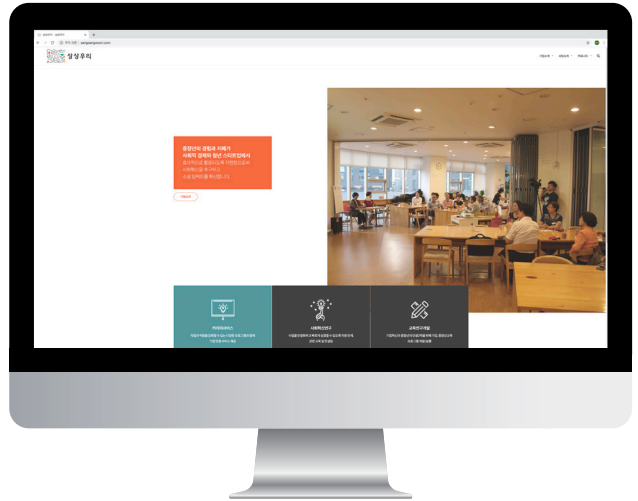
은퇴 전후 시니어 세대들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크게 시니어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 경험을 나누고 새롭게 배우며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캠퍼스’, 시니어 맞춤 정보들로 개별 상담을 해주는 ‘센터’로 나뉜다. 배움(배움/배움스케치), 일과 참여(사회공헌일자리/양코르일자리/창업/인재뱅크/양코르스토리), 커뮤니티(50+커뮤니티/50+협력기관), 라이프(50+매거진/소소한 팀), 상담(멘토링 칼럼/온라인 상담/방문상담 신청/자가진단) 등 각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0플러스캠퍼스

중장년 세대를 위한 교육을 비롯해 일자리 및 창업, 사회참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50플러스상담센터

공감대가 비슷한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가 유용한 맞춤 정보들을 1대 1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종합상담센터. 경력 관리부터 재취업, 창업 노하우 등 새로운 일 찾기까지 상담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활동도 알려준다. 중장년 정책, 제도,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요일 (09~19시), 토요일 (09~17시)이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시니어의 경험이 사회혁신의 자원으로
 상상우리 (www.sangsangwoori.com)

시니어의 경험과 자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생 2막의 설계와 전직·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인재관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커리어 서비스

일에 집중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년 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시장 및 스타트업 시장에 집중하는 ‘사회적 경제&스타트업 시장 창업 및 재취업 교육’과 시니어가 더 많은 회사들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커리어텔링 일자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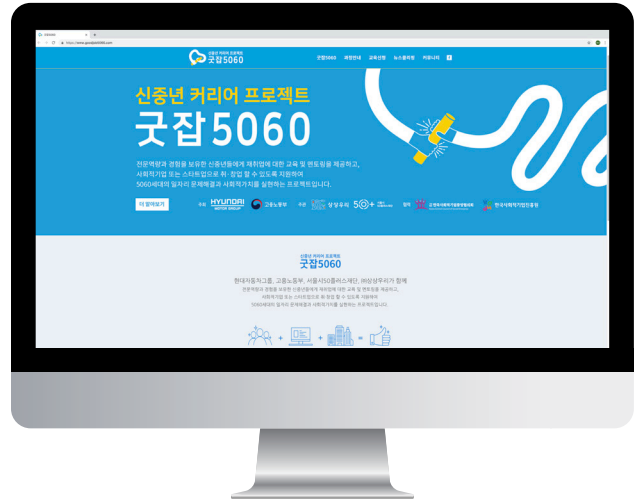
사회혁신교육

사회혁신가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혁신을 실행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연구하고 교육에 적용하는 ‘사회혁신 방법론 연구’도 수행한다.

교육연구개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 ‘교육기획 및 설계’를 제공하고, 교육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교육 진단 및 관리, 평가도구 연구’를 개발한다.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용 툴킷 개발’을 진행한다.

재취업 및 시니어 커리어 정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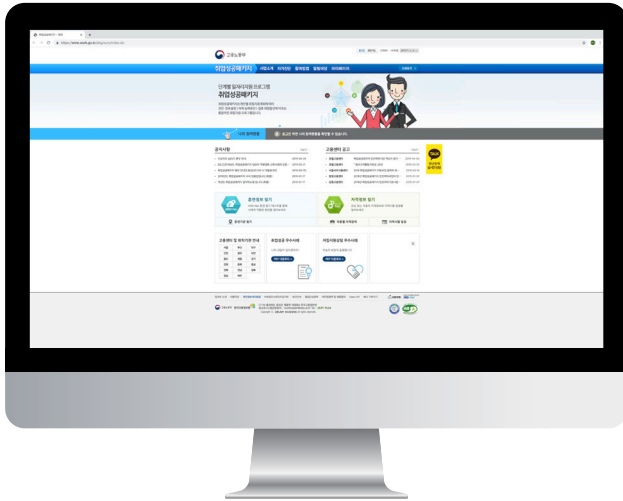


시니어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www.goodjob5060.com)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상상우리 네 곳의 파트너 기관들이 모여 시니어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만든 새로운 협력 모델. 시니어에게 재취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취업·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5060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굿잡5060은 단순한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회혁신을 창조하는 새로운 솔루션 모델로, 전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 5060'과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의 핵심 개념을 결합한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다. 올해로 18기 교육생을 모집했다. 매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취·창업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 '교육생 선발 워크숍',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함께 일하는 방법, 자아성찰 등 나만의 핵심 역량을 찾고 강화하는 과정으로 시니어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소수 정예 토론식 교육과정 '핵심 역량 강화 교육', 뉴-커리어를 찾아가는 실행 과정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후속 교육 및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이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재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 내 참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니어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체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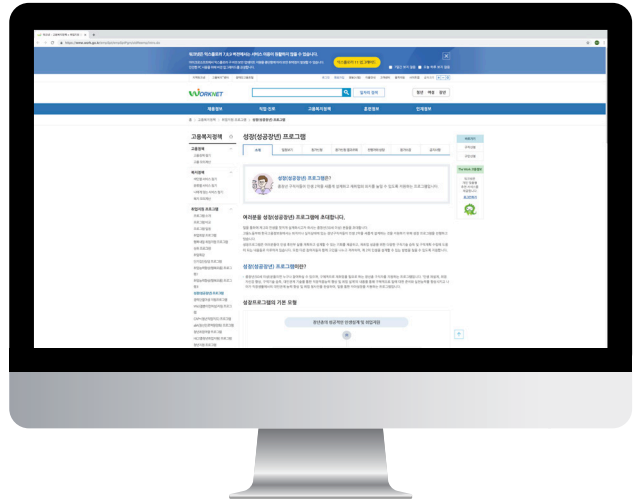
총 3단계, 약 1년간 단계별 취업 지원을 실시한다.

1단계로 진로상담을 통해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시행하고, 2단계는 직업훈련, 3단계는 기업 매칭 및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으로 진행된다.

***직업훈련 단계에서 내일배움카드로 참여 시, 직업훈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국비 지원 수강 가능.**

(내일배움카드: 직무 수행능력이 필요한 실업자 및 시니어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재)취·창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방법



성공적인 시니어가 되는 길,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재취업을 필요로 하는 시니어 구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탐색에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 교육 및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해 4일간 6시간씩 진행하며, 진행자와 참가자 간의 밀접한 교류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선택을 위한 준비 (자신에 대한 이해, 희망 취업 분야 선택 등), 구직을 위한 학습 (일자리 정보 찾기, 이력서 작성법 익히기 등), 계획 세우기 (구직 실행 계획 세우기,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하기 등), 결과 (구직 성공, 정신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 등) 등을 기본 모형으로 4일 동안 만남의 마당·배움의 마당·실천의 마당·공정의 마당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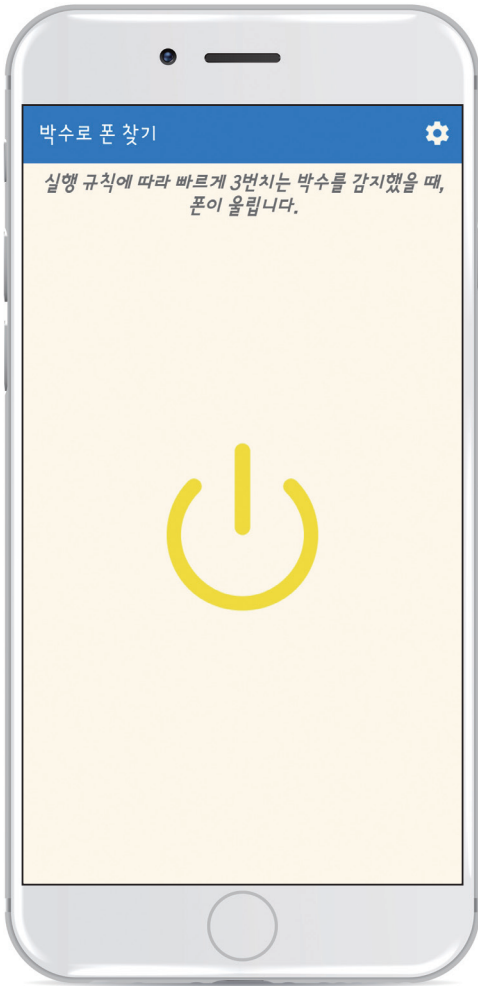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앱 사용설명서

시니어들의 모바일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앱도 많아지고 있다. 시니어들의
필요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앱들을 소개한다.



말은 안 해도 시니어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을 따라 노력하려 해도 남들은 너무 쉽게 하는 것을 혼자 해매고 있자니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아예 쓰는 기능만 쓰려하지 새로운 앱을 깔거나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염려 마시라. 여기 사용하기 쉽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앱을 소개한다. **젊은이들은 모르고 시니어들은 아는, 앱을 깔고 당당하게 사용하시라.** 소개하는 모든 앱은 시니어들의 스마트폰 환경을 고려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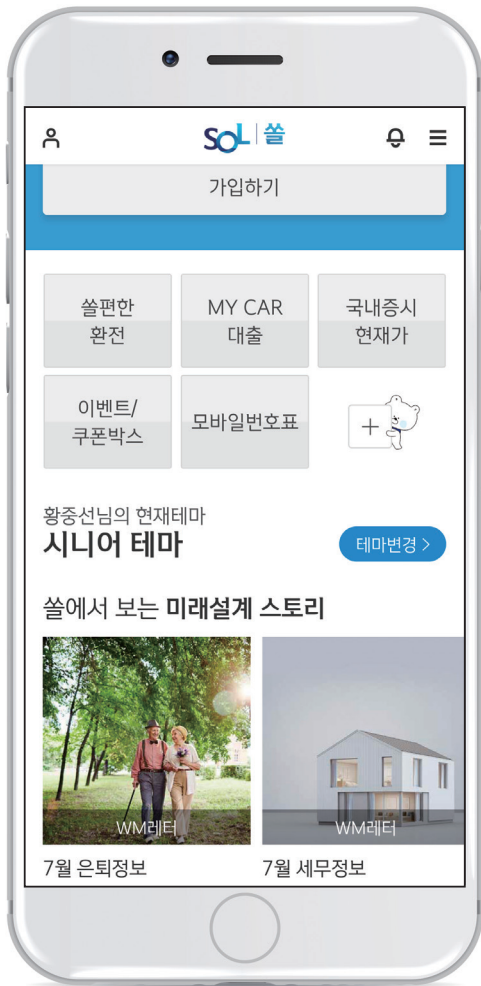
핸드폰 찾기 앱 '박수로 폰 찾기'

말 그대로 박수를 치면 핸드폰의 위치를 알려준다. 방금 전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를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 앱이다. 집안이나 자동차 안 등 근거리에서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 핸드폰을 찾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면 이와 비슷한 앱이 많다. 수요가 많은 것이고, 말은 안 해도 시니어들에게 '필수 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 뜬금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되니 카페나 술집과 같은 공공장소에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돈 버는 만보기 '캐시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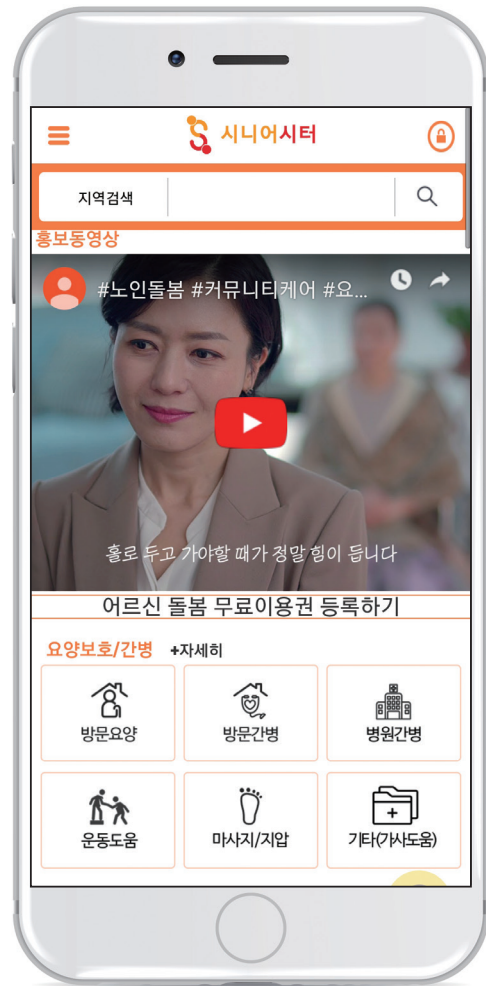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만보기는 예전부터 시니어들의 애용품이었다. 만보기를 차고 있으면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점만 빼면 만보기는 훌륭한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옆구리에 만보기 차고 걸을 필요가 없다. 이 앱은 잠금화면에서 걷기를 하면 걸음 수, 소비한 칼로리, 걸은 시간, 거리를 카운트 해준다. 게다가 100걸음에 1캐시가 적립된다. 만보를 걷게 되면 100캐시가 적립된다. 겨우 100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운동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뱅킹 '신한 솔(SOL)'

최근 시니어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50대 이상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용 '모바일 사용설명서' 동영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신한 솔(SOL)은 연령대별로 7가지 UI를 도입해 주목 받았다. 시니어를 위해서 큰 글씨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책임지는 '미래설계통장' 상품 등의 금융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고, 모든 연금을 한눈에 파악해 수익률까지 분석해준다.



종합 돌봄 서비스 '시니어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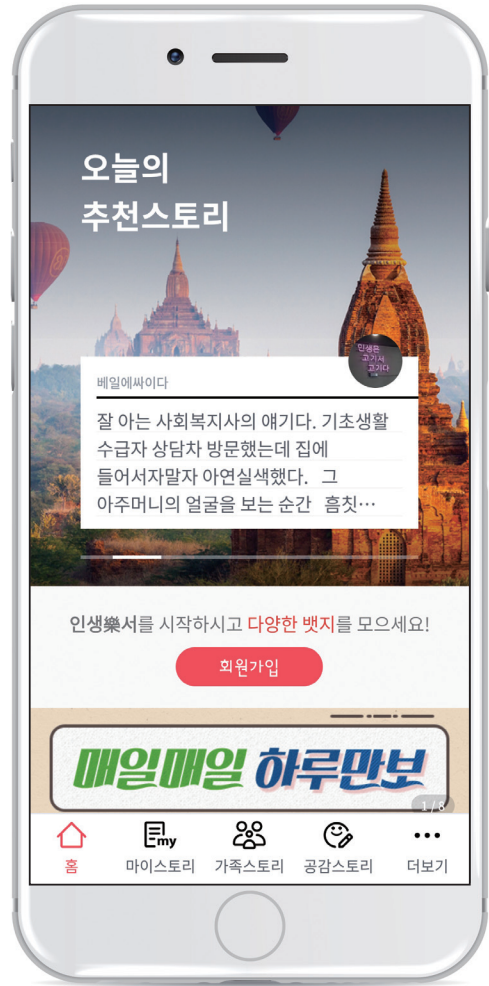
단기요양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한 앱이다. 기본적으로 시니어와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주는 앱이지만,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는 물론 출장 미용 서비스,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등도 매칭할 수 있다.

시니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아파서 못쳐 눕기라도 하면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되고 만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 시니어라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시니어시터'가 등장했다. 자식들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시니어 일자리 찾기 ‘알바천국 중장년’

알바천국에서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찾기 앱을 따로 만들었다. 시니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겠다고 말할 용기가 차마 없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 틈에서 구인란을 기웃거리기가 눈치 보인다. 좋은 자리다 싶어 상세정보를 눌러보면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고, 세상이 날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걸러내고 **오롯이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만 따로 모아놓은 앱이 필요하다.** 일이 필요한 당신, 이 앱을 다운!



추억 부르는 글쓰기 ‘인생락서’

이 앱은 바쁘게 살아온 대한민국 모든 중장년들을 위한 추억·공감 글쓰기 커뮤니티 앱이다. **메모, 동영상, 사진, 음성 등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마이스토리’ 메뉴는 400개 이상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며 잊혀진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출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2019' ACTIVE SENIOR IN SEOUL



21세기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인류를 낳고 있다.
이제 시니어 세대는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다.
세상의 패러다임 역시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다. 하지만 그 중심인 서울은 늙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꿈틀대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2019년 서울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니어 세대가 거의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핵심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은퇴 후 뮤직바를 운영하는 엄진규 씨. 요즘 그의 고민은 좀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사는 것이다. 넉넉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경제력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어느 정도 누리고는
산다 해도 어딘가 허전하다. 돈을 쓰되 더 알차고 근사하게 쓰고
싶은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투입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어줄 '가심비' 라이프스타일을 찾고 싶은 것이다. 옷을 입어도 자
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밥 한 끼를 먹어도 허투루 먹고 싶지 않
다. 취미생활에도 한 뼘의 차이가 있는 법. 친구를 만나도 장소가
중요하고, 여행을 가도 왜 그 곳을 가는지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

겠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에겐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가 한정
돼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엄진규 씨는 성북동의 '한국가구박물관'을 찾았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 등 국내 재계 인사들과 이 곳에서 만났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
문이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정치 지도자
들과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에 이르기까지 이 곳에 대한 찬
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한옥과 고가구의 매력도 인상적이었

지만 무엇보다 안채에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성북동의 경치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CNN이 이 곳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곳을 나서 성북동 길을 걷다가 불쑥 들른 ‘수연산방’은 가구박물관의 ‘차경’과는 다른 ‘다향’의 느낌을 전해주었다. 이번 주말엔 최근 공무원 시험을 치른 딸과 함께 ‘서울책보고’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내 독립출판사들이 힘을 합쳐 만든 이 공공 헌책방에서 유서 깊은 서적들의 컬렉션을 감상할 것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다. UN이 정한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 이제 환갑은 거의 사어가 됐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5년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노년학회는 한 발 더 나아가 75세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선진국들은 정년퇴직 연령을 속속 늦추고 있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는 이미 오래 전 현실이 됐다.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우리나라도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진입했다. 전 세계의 인구지표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는 세계의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중심, 액티브 시니어

일본의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은 2025년 일본 시니어 시장의 규모가 101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고령자 세대의 연간 소비 지출은 가까운 시대에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전망했다. 미국 역시 ‘장수 경제’라 불리는 시니어 시장의 규모가 2032년 무려 13조 5000억 달러(1경 4850조 원)를 넘어 GDP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니어 세대가 거의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핵심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시니어 시프트’의 도도한 물결이 현실이 된 것이다.

얼마 전 아들을 결혼시킨 정은경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 차린 살림집으로 보내 버렸다. 수년 전 남편을 여읜 그는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해 당당한 독립

- 1 한국가구박물관
- 2 수연산방
- 3 서울책보고





여성의 삶을 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골프를 즐기고 연간 3~4 차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

매주 1~2회는 서울의 힙 스폿에서 친구와 고객들을 만난다. 간판도 없는데 줄을 서서 먹는다는 을지로 '낙'에서 퓨전 디너를 먹고, '와인바 화담'에서 떡볶이와 와인으로 2차를 즐긴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인 '을지 OB 베어'가 가게 터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했다. 최근엔 오래된 안경을 서랍에 넣고 새 안경테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북촌의 '젠틀몬스터'에 갔다. 1년 전부터 친구들과 종종 만나는 성수동의 '성수연방'도 그렇지만,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했다는 젠틸몬스터는 사과의 전환이 얼마나 신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업무상 만나는 클라이언트들과 저녁을 겸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나는 서울의 미식 '씬'들은 그야말로 다이내믹하다. 요괴라면, 개념만두 등 감성 넘치는 디자인과 네이밍으로 화제를 불러온 '옥토키 프로젝트'는 외식산업의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가 마련한 감성 편의점 '고잉메리 광화문점'은 세대를 불문한 손님들로 활기차다. 오피스족에게 낯설의 성지, 잔술 비스트로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북한산을 내려다보며 한옥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식음식점 '1인1상'은 동행인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곳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소반(1상)으로 한식과 이탈리아의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요즘처럼 야외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갖기 좋은 계절엔 라이즈 오토그래피 호텔 15층에 위치한 라운지 바 '사이드 노트 클럽'을 추천해주고 싶다. 홍대의 음악 문화를 끌어안은 이 곳은 DJ 소울스케이프가 큐레이션 한 음악과 함께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근사한 루프탑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포스트 실버 세대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아름답게 늙기를 원하는 세대, 액티브 시니어에게 나이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가치와 관계, 트렌드와 취향을 중시하는 세대

액티브 시니어는 포스트 실버 세대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아름답게 늙기를 원하는 세대, 액티브 시니어에게 나이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당대의 트렌드를 향유한다. 이전의 실버 세대가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드러내고 표출한다. 젊은이들의 영역에 과감하게 섞이고, 자신만의 정서와 느낌으로 패션을 입는다. 모바일과도 친숙하다. 이미 페이스북은 50대의 놀이터가 됐다. 20~30대는 인스타로 망명한 지 오래다. 액티브 시니어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다. 소비 역시 관계를 지향한다. 이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을지로와 광화문, 해방촌과 후암동, 상수동과 망원동, 성수동의 힙한 공간들이 빠르게 공유된다. 액티브 시니어는 더 이상 도시 라이프스타일의 변방이 아니다.

디자이너 김민철 씨는 섬세한 미각의 소유자다. 과거 디자이너 일을 잠시 접고 파스타 가게의 오너 셰프였던 적도 있다. 요즘도 지인들을 내공 있는 식당에서 만난다. 이제 나이 앞에 ‘6’자를 붙였지만, 세월이 쌓인 노포에서 퓨전 비스트로까지, 다양한 식당들이 그의 사정권에 있다. 을지로의 산수갑산과 을지면옥, 동원집과 원조늬두는 오랜 단골이다. 술 좋아하니 맛난 안주와 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섹션에이’는 파스타집 사장님이던 과거의 입맛을 불러내는 곳이어서 좋아한다. 지직거리는 LP 소리가 그리울 땐 압구정동의 지하로 흘러 든다. 마스터(주인장)의 수집 열정 덕분에 1만 5000장의 LP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포크에서 록

- 1 녘
- 2 성수연방
- 3 젠틀몬스터
- 4 고잉메리 광화문점
- 5 1인1상



까지, 1970~1980년대의 명반들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민철 씨는 취향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다. 요즘 시니어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 못지 않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취향이 분명한 것이기도 하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비즈니스 산업은 시니어 세대의 소비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사회가 주목한 패턴은 가치, 유행, 건강, 편리다. 오랜 세월 경륜이 쌓인 시니어 세대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주목한다. 속도와 휘발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소비패턴과는 구별되는 대목이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기도 하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보호하고 새롭게 해석한 을지로와 해방촌의 자생적인 도시 재생은 시니어의 특징과도 닮아 있다. 그렇다고 시니어 세대가 트렌드에 둔감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적어도 ‘시대에 뒤쳐진다’는 평가에 민감하다. 모바일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들의 트렌드지수는 젊은

힙한 도시 서울, 액티브 시니어를 만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나라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걸린 데 비해, 한국은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도시로 꼽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매체들은 IT, 패션, 음식, 영상, 엔터테인먼트, 건축, 디자인, 호텔,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을 힙한 도시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은 곳곳에 양질의 카페가 넘쳐나는 덕분에 ‘카페에 미친 도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오늘날 서울 사람들의





1, 2 사이드 노트 클럽
3, 4 섹션에이
5, 6 트래픽L.P.바

공간과 음악,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 지 알고 싶다면 도시의 가장 인기 있는 카페에 방문해 보길 권한다.”(Suyong Joh, <The Monocle Travel Guide Series : Seoul>_ Magazine ‘Seoul’ 편 중) “수십 년간 호황을 누린 경제를 발판으로 서울의 기반 시설과 건축은 빠르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현대판 ‘황금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고 흥미진진한 도시의 풍경을 빚어낼 대대적 변화를 엄청난 속도로 겪고 있다.”(Scott Bay, <Wallpaper>_ Magazine ‘Seoul’ 편 중)

서울은 관광과 관련한 주요 지표들에서도 세계 관광 도시 순위 10위권 안에 들고 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매우 흥미진진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서울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을 제안한다. 더 깊고 자세하게 볼수록, 서울은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보답할 것이다.



독서와 토론이 ‘우리’를 만드는 곳

인문학 중심의 강연이나 모임이 주목받는 시대다.
오프라인에서 만나 취향을 나누고 지식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인문학 놀이터가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트레바리가 바로 그 곳.
독서를 매개체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독서
커뮤니티 중 하나다.



추천 클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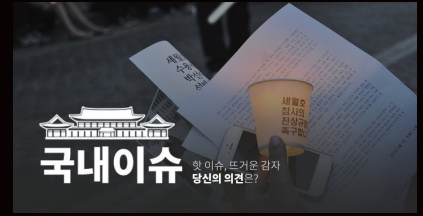
1 무경계

경계와 제약 없이 책을 골라 읽고, 함께 모여 토론하는 클럽. 함께 읽은 책을 투표로 선정한다. 혼자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읽고,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생각을 나눌 수 있다.



2 복씨

책과 영화를 보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클럽. 원작이 책인 영화와 원작을, 또는 같은 주제를 다룬 두 가지의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함께 보며 풍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다. 책과 영화를 따로 볼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유니크하고 다양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3 국내 이슈

다양한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클럽. 성 평등과 젠더 이슈, 혐오, 밀레니얼 세대 등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다양한 연령과 나이, 배경과 직업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독서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트레바리는 독서 취향을 기반으로 독후감을 제출하고 토론하는 오프라인 클럽이다. 경제, 인문, 소설, 여행 등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의 독서 클럽을 선택한 뒤, 가입비를 내고 유료 회원이 되면 4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모임에 늦거나 독후감을 내지 않을 경우,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엄격한 방침 때문에 설령 설령 하기도 힘든 클럽이다.

취향에 따라 각자 다른 관심사를 공부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2015년 9월 첫 클럽을 개설한 이후 3000명이 넘는다. 평소 읽던 책 말고 다른 책을 읽어 보고 싶거나,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트레바리의 서비스와 잘 맞아떨어진 셈이다. 회원들은 이름만 간단하게 밝힐 뿐 굳이 나이와 직업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오직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만을 존중하는 서비스 형식 덕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다. 개인의 취향을 밀어붙이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며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임이다.

트레바리 사용법

우선 트레바리 홈페이지(trevari.co.kr/)를 보고 4개월 동안 소속될 클럽을 정한다. 클럽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 어떤 클럽을 정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선택 장애가 올 수도 있다. 집이나 일터의 위치를 고려해 압구정, 안국, 성수, 강남역 중 한 곳을 먼저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트레바리 멤버라면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아지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스티디룸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클럽장의 유무를 보는 것도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독서 모임을 이끄는 클럽장은 해당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로 독서모임을 하다 막히는 경우 방향을 이끌어주며, 책 회원들의 멘토링 역할까지 한다. 물론, 클럽장 유무에 따라 멤버십 비용도 다르다(클럽장이 있는 클럽은 29만원, 함께 만드는 클럽 19만원).



독립서점, 책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

동네마다 작지만 유명한 독립서점이 있다. 거대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 대로 꾸민 작은 서점. 대형서점에서는 다루지 않는 책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1인 출판물과 독립출판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요즘 독립서점들은 책을 판매하는 일 외에도 저자와의 만남, 낭독회, 독립출판을 위한

워크숍 등을 열며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직접 소통한다. 서점 주인이 특별하게 큐레이션 한 책을 매개로 자신의 감성과 통하는 지점을 찾고 공유하는 독립서점은 2030세대의 인기를 넘어 시니어 세대에게도 소통하고 싶은 공간, 직접 갖고 싶은 공간으로 각광받는다.

1 니은서점



ADD 은평구 연서로26길 35
OPEN 수-토 14:00-20:00 일 14:00-18:00
TEL 031-219-2777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와 그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점이다. '니은서점'이란 이름은 교수의 노씨 성 '니'에서 따서 지었다. 이곳은 독립출판 서적이 중심이 아니라 **인문사회예술 서적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판매용 책들 사이에는 마스터 북텐더(북+바텐더)인 노명우 교수가 읽은 책들도 같이 끼워져 있다. '공유서재'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이 책들 안에는 밑줄도 그어져 있고, 코멘트도 쓰여 있다. 또 그가 읽은 책들에는 자신이 직접 읽고 쓴 감상평을 띠지로 만들어 붙였다.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을 선정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는 '니은낭독회' 모임도 주마다 열린다.**

2 다시서점 한남점



ADD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42길 34 지하1층
OPEN 월-토 12:00-18:00
TEL 010-9285-4869

시와 에세이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독립서점이다. 문학과 지성사, 민음사, 문학동네의 시인선을 비롯하여 독립출판한 시집과 에세이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다.

다시서점 이름에는 '다시 한다'는 뜻과 함께 '시가 많다'는 '다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 시인의 책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600권이 넘는 시집과 시인이 쓴 산문책, 텍스트 위주의 독립출판물을 주로 판매한다.** 한쪽 벽에는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독립출판물의 책도 잘 보이게 비치하고 있다. 독립서점 중에는 드물게 온라인 판매도 활발히 하는 편이다. **낮에는 서점으로, 밤에는 초능력이란 이름의 간판으로 바로 변신하는 점도 재미있다.**

3 부비프(Buvif)



ADD 성북구 보문로30가길 31, 1층
OPEN 12:00-19:00
TEL 010-6312-7663

유럽 어느 집의 서재에 들어와있는 느낌. 빈티지한 초록색과 짙은 색의 원목가구가 차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준다. 글쓰기 모임에서 만나 연인이 된 두 사람이 연 동네책방으로, 독립출판물과 함께 주로 문학, 에세이, 예술, 그림책, 인문학 도서 등을 판매한다.

책방지기가 읽은 책들은 손글씨로 직접 써서 만든 띠지를 만들어 소개를 하고 있으며, 매달 선정한 블라인드 북 한 권과 직접 쓴 서평을 보내주는 회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책, 그리고 당신을 읽는 밤'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핸드드립 커피와 와인도 판매한다.**

4 성북동 부쿠



ADD 성북구 성북로 167
OPEN 10:30-21:00
TEL 070-7014-0167

'일상을 잊을 자유, 마음껏 읽을 자유' 라는 슬로건 아래 성북동에 여유롭게 자리한 독립서점이다.

유럽식 벽돌건물에 중후하고 우아한 서점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편안함을 준다. 책을 좋아하는 작가와 기획자가 모여 만든 이곳에서는 네 명의 북 큐레이터가 직접 읽고 선정한 도서를 판매한다. 매달 부쿠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 15권을 소개하며, 매달 한 명의 저자를 초청해 북토크도 연다. **퇴근 후 책 한권, 독서 취미를 위한 생활의 독서모임 '부쿠에서 만나요'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다.** 지정 도서를 1시간 30분 읽고, 독서 후 30분 동안 부쿠의 시그니처 부쿠 픽을 하는 시간이다.

5 스토리지북앤필름



ADD 서울 용산구 신흥로 115-1
OPEN 13:00-19:00
TEL 070-5103-9975

해방촌에 자리한 독립서점. 올해로 문을 연 지 11년째가 되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책방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웬만한 종류의 독립출판물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사진집과 매거진, 그래픽 노블, 에세이는 물론, 아트 포스터와 에코백 등의 굿즈도 판매한다.**

이곳의 주인장은 책방 운영 뿐만 아니라 'TOGOFOTO'라는 이름으로 여행사진집도 꾸준히 출판하고 있다. 또 독립출판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매년 각종 독립서적을 만나볼 수 있는 독립출판 전시회 '언어전', 그리고 디자인 이름과 함께 '책 보부상 마켓'도 열고 있다. 후암동에는 스토리지북앤필름의 분점도 자리해 있다.

6 역사책방



ADD 종로구 통의동 12
OPEN 10:30-22:00
TEL 02-733-8348

경복궁 영추문 부근에 자리한 '역사책방'은 역사를 좋아하는 전직 IT 기업의 임원이 차린 역사 전문서점이다. 독립서점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는 다락방까지 있다.

시대별, 지역별로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책들을 갖추고 있고, 여행, 건축사, 미술사 분야로 역사책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지난해에는 시인 신현림, 유시민 작가, 한홍구 교수 등 저명한 인사들의 강연을 열었으며, 지금도 매주 강연과 북토크를 진행한다. **매 강연마다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의 역사 강연 시리즈는 인기가 높다.**

7 유어마인드



ADD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1라길 10-6
OPEN 13:00-20:00 화요일 휴무
TEL 070-8821-8990

독립서점의 1세대로 불린다. 서교동에서 최근 연희동의 복합문화공간 '은/는'의 건물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점 자체적으로도 기획 출판을 하는 곳이며, 이곳의 주인장 이로 대표는 유명 아트북페어인 '언리미티드 에디션'도 기획하고 있다. 기성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을 함께 파는 작은 서점들과 달리, **국내 소형 출판사나 아티스트 개인이 만든 1인 출판물, 아트서적, 수입서적 등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또 그림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스티커 등도 판매한다.**

8 위트 앤 시니컬



ADD 종로구 창경궁로 271-1 동양서림 안쪽 2층
OPEN 월-금 13:00-21:00 토 13:00-20:00 일 13:00-18:00
TEL 0507-1409-6015

시인 유희경이 운영하던 신촌의 특별한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이 혜화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 동지를 틈 곳은 1953년에 문을 열어 66년째를 맞는 동양서림의 나선 계단 위. 총 1600여 권의 시집을 갖춘 위트앤시니컬은 **대형서점보다 다양한 시집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놓여있는 시를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필사해 보는 '시인의 책상' 자리도 그대로다. 서점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열어온 시 낭독회는 40회. 좀 더 즐거운 시 읽기를 위해 만든 수업 형태의 '**김언 시인과 조곤조곤 시 읽는 시간**'도 생겼다. 이제 '세상 어딘가에는 하나쯤 시집서점'은 동양서림과 함께 100년 서점을 꿈꾼다.

9 질문서점 인공위성



ADD 구로구 구로 중앙로 27가길 32
OPEN 12:00-21:00(월요일 화요일 휴무)
TEL 070-4642-0255

한쪽 벽 가득 하얀색 종이로 감싼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무슨 책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저 하얀 커버 위에 쓰인 질문을 보고 책을 사는 '질문서점'이다.

이곳의 책들은 모두 기부받는다. 기부를 받을 때 질문도 같이 받는데, 서점 에디터들이 질문 기부자를 인터뷰해 작은 책자를 만들고 서울을 비롯해 제주, 광주, 부산에 있는 인공위성 서점과 공유한다. '당신은 어떤 인연을 만나면서 살고 있나요' '여행길에서 만난 그리움 또는 후회로 남는 장면' 등의 질문을 읽으며, 고르는 책 한권, 이 독특한 컨셉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10 최인아책방



ADD 강남구 선릉로 521
OPEN 평일 11:00-21:00 주말 11:00-20:00
TEL 02-2088-7330

독립서점을 대표하는 곳 중 하나다. 제일기획 부사장 출신의 최인아 대표와 디트라이브 정치헌 대표가 설립했다. 최인아 대표가 기획한 주제에 따라 도서를 큐레이션 하고, 왜 그 책을 추천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편지처럼 꽂혀 있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책', '내 인생의 책' 등의 주제로 대표들의 선후배 지인들이 추천한 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또 지난 1년간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를 선정한다. 이 곳 **북클럽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달 책방에서 큐레이션 한 책을 배송받고, 추천 편지와 저자의 북토크에도 참석할 수 있다.** 북층 계단을 올라가면 무료로 제공되는 책들을 읽을 수 있다. 책방 한편에서는 커피와 음료도 판매한다.

독립출판, 1인 출판으로 시작하는 신중년

문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
063-713-5922~3

독립출판은 한 개인이 스스로 비용을 내서 출판한다는 점에서 1인 출판이라고도 불린다. 대부분 자비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본에서 독립된 구조다. 한 개인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기획, 원고작성, 편집, 디자인, 제작, 유통까지 직접 다 해야 하는, 꽤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독립출판의 가장 큰 매력이자 도전이다. 그리고 컨셉에 따라 비용이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 만들 수도 있다. 또 기획이 좋다면, 우선 제작을 하고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처음 독립출판을 하는 경우, 비용은 보통 몇 십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사람이 많다.

본래 책을 낸다고 하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는다. 이 번호가 있어야 정식 출판물이 되며, 일반 서점에도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검색도 된다. 그러나 독립출판물 중에는 이 ISBN을 발급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판하는 책이 많다.

자신만의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다. 우선 여러 독립서점들이 자

체적으로 진행하는 독립출판에 대한 강의나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2017년부터 시작한 'NPS 신중년 아카데미'가 그 중 하나다.** 100세 시대를 맞아 신중년과 시니어를 위해 만든 노후 준비 서비스로, 글쓰기, 유튜브 활용, 팟캐스트, 노후설계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콘텐츠의 방향을 잡아주고, 수익 창출로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준다. 현재 서울에 두 곳, 부산에 한 곳 신중년센터가 있다.

'작가탄생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받은 내용을 활용해 책까지 내게 된다. 예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번 내지, 두번까지 진행한다. 작가탄생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동영상 시대에 발맞춘 1인 크리에이터 과정도 인기다. 유튜브 채널 기획과 촬영, 편집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젊은 세대를 넘어 시니어 세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독립출판을 비롯한 1인 미디어의 세계는 능동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을지로

을지로에 새로운 풍경과 맛이 들어서고 있다. 을지로 대로변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낡은 골목 곳곳에 젊은 분위기의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번잡스럽지 않게, 혼한 간판 하나 없이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 꼭꼭 숨은 위치에 자리잡는 풍경들이 을지로스럽다. 노포들과 인쇄소, 철물점 등의 예스러움과 자유롭고 유틸 있는 젊은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을지로의 낮과 밤.



STREET



1 산수갑산



ADD 중구 을지로20길 24
OPEN 점심 11:30~15:00, 저녁 17:00~22:00, 일요일 휴무
TEL 02-2275-6654

1989년에 오픈해 30년 가까이 된, 서울을 대표하는 순대 전문점. 마니아들이 순대 성지 순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특히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대창순대와 부속고기는 술을 부른다. 낮에도 테이블에는 소주 여러 병이 올라와 있다.

2 을지 OB 베어



ADD 중구 충무로9길 12
OPEN 12:00~23:00
TEL 02-2264-1597

1980년 을지로에 가장 먼저 문을 연, 노가리 골목의 산증인이자 시조인 생맥주 전문점. 냉장 숙성으로 생맥주의 참맛을 낸 맥주는 한 번 마시면 그 맛에 중독된다 해서 '마약 맥주'로도 불린다. 연탄불에 정성스럽게 구워낸 노가리는 단돈 천원. 가격과 분위기는 소박하지만 이 집의 세월과 맛만큼은 절대 소박하지 않다.

3 원조녹두



ADD 중구 을지로11길 26-2

OPEN 16:00~23:00

TEL 02-2277-0241

근처만 가도 고소한 기름 냄새 덕분에 발길을 멈추게 되는 녹두 전집. 전 종류만 열 가지 넘고, 옛날 방식 그대로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부쳐내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이 가득하다. 고추 속을 파내 부치는 일반 고추전과는 달리, 청양고추 조각을 뿌려 파전처럼 부쳐내는 고추전이 별미. 시원한 막걸리까지 곁들이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4 동원집



ADD 중구 을지로 11길 22

OPEN 아침 및 점심 07:00~15:30, 저녁 16:30~22:00, 일요일 휴무

TEL 02-2265-1339

제철소 골목에서 30여 년째 운영 중인 감자국 전문점. 잡내 없는 깔끔한 국물, 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는 부드러운 살코기가 일품이다. 감자국으로 유명하지만 선지와 찹쌀이 많이 들어가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진한 순대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감자국과 접시순대, 소주를 마치 세트메뉴처럼 모두 주문한 테이블이 많이 보인다.

5 을지면옥



ADD 중구 충무로 14길 2-1
OPEN 점심 11:00~15:30, 저녁 17:00~21:00, 일요일 휴무
TEL 02-2266-7052

1985년부터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집. 의정부파 평양냉면의 직계로 메밀 함량이 높은 면과 맑은 육수에 고기 고명을 투박하게 올리고 송송 썰어낸 파와 고춧가루를 뿌려준다. 다 먹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숨습한 맛이 자꾸 생각난다.

6 커피한약방



ADD 중구 삼일대로12길 16-6
OPEN 평일 08:00~22:30, 토요일 11:00~22:00, 일요일 11:00~21:30
TEL 070-4148-4242

조선시대 허준의 '해민서'가 있던 터에 자리를 잡고, 한약이 아닌 커피를 파는 한국풍 레트로 스타일 카페. 고풍스러운 상들리에부터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과중시계, 자개장까지 개화기 때로 돌아간 듯한 인테리어에 한 번, 수동 통돌이에 원두를 볶는 소리와 구수한 커피 향에 두 번 마음을 뺏기게 된다.

7 백두강산



ADD 중구 수표로 22-6 제복빌딩 3층

OPEN 월, 목~토 13:00~21:00, 일 13:00~20:00, 화~수 휴무 (변동 시 인스타그램 공지)

TEL 010-9937-7061 **WEB** [instagram.com/baekdugangsan](https://www.instagram.com/baekdugangsan)

인쇄 골목 초입에 있는 건물 3층에 손글씨로 ‘백두강산’이라고 적힌, 대충 찢어진 연습장 한 장이 철문에 붙어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면 어둡한 실내의 다방 소파, 화려한 커튼, 백두강산을 한자로 써놓은 현판 등 범상치 않은 것들 투성이다. 여기에 산 모양처럼 거칠게 깎아낸 아이스 음료의 얼음과 칵테일 잔에 내는 위엄 있는 시그니처 커피까지. 그 매력에 단골도 많다.

8 에이스포클럽



ADD 중구 을지로 105 2층

OPEN 평일 12:00~24:00, 금요일 12:00~02:00, 토요일 14:00~02:00, 일요일 17:00~24:00

TEL 010-9959-9733

60년간 을지로를 지킨 이화다방을 물려받아 새롭게 정돈한 카페 겸 바. 입구와 간판, 액자까지 그대로 두었다. 낮엔 카페, 밤엔 바로 변신하는데 술을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낮술도 당연히 가능하다. 맥주부터 하이볼, 와인, 칵테일까지 다양한 주종을 취급한다. 커피는 오후 4시 30분까지만 주문 받는다.

9 서울 비어 프로젝트 (SBP)



ADD 중구 수표로 68

OPEN 화~목 18:00~24:00, 금요일 18:00~01:00, 토요일 15:00~01:00, 일요일 15:00~23:00,

TEL 02-2272-5500 **WEB** [instagram.com/seoul.beerproject](https://www.instagram.com/seoul.beerproject)

간판 대신 'Now, Drink New'라는 네온사인이 반겨주는 크래프트 맥주 전문점. 'SEOUL BEER PROJECT'를 줄여서 SBP라고 불린다. 미국 및 유럽 등 현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크래프트 맥주들을 독점으로 수입해 맥덕의 성지로 각광받는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술드 아웃되기 십상. 부지런한 자에게만 희귀한 맥주를 마실 기회를 주는 집이다. 월요일엔 휴무다.

10 녀



ADD 중구 수표로 65

OPEN 월~목 점심 11:00~15:00 저녁 18:00~22:00, 토요일 점심 11:00~15:00

저녁 17:00~22:00, 일요일 점심 11:00~14:30 저녁 17:00~21:00

TEL 070-4150-0504 **WEB** [instagram.com/nyugradientable](https://www.instagram.com/nyugradientable)

퓨전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자 카페, 바인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공간. 실내 디자인부터 음식, 서비스 등 모든 디테일에 신경 쓴 것이 느껴진다. 특히 식재료 본연의 맛을 녀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메뉴들이 인상적.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11 와인바 화담



ADD 중구 을지로9길 14 삼원빌딩 3층
OPEN 월~토 17:00~01:00, 일요일 휴무
TEL 02-6925-5525

압구정동 터줏대감인 와인바 '뱅가'가 을지로에 오픈한 부티크 와인바. 이곳의 첫 번째 매력은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외부와는 대조적인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실내 공간이다. 두 번째는 가성비 좋은 와인과 떡 대신 분모자 당면을 넣고 감자를 올려 먹는 띠호와 떡볶이, 골뱅이의 단짠인 소면 대신 파스타 면을 사용한 골뱅이 파스타 등 위트넘치는 개성 만점의 안주들이다.

12 레드스타



ADD 중구 수표로 48-12
OPEN 월~토 18:00~24:00, 일요일 휴무
TEL 02-6489-2927

왠지 모르게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싶어지는 골목의 심야식당. 술과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은한 분위기와 묵직한 맛의 메뉴들이 돋보인다. 한식과 일식, 양식 등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메뉴들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모든 메뉴들과 술의 밸런스가 좋고 고급스러운 맛이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금융거래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YouTube 시니어를 위한 쓸 사용법 🔍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1 SOL 회원가입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신한은행 쓸(SOL)앱 설치하고 회원가입하기

#2 계좌송금하기

#1편에서 설치한 쓸(SOL)앱을 이용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

#3 큰 글씨 변경

쓸(SOL)앱에서 큰 글씨체로 변경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기

